

‘메이저 챔피언’ 양용은 ‘볼보’ 탔다



양용은이 18일 중국 쑤저우 진지레이크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 원아시아 투어 볼보 차이나오픈 대회에서 우승한 후 우승컵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EPGA 차이나오픈 15언더파 우승
50홀 무보기 진기록도...김도훈 8위

‘바람의 아들’ 양용은(38)이 다음 주 한국 방문을 앞두고 팬들에게 머리 우승컵을 선물했다.
양용은은 18일 중국 쑤저우 진지레이크 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7천326야드)에서 열린 원아시아 투어 볼보차이나오픈 4라운드에서 버디 2개에 보기 1개를 적어내 함께 15언더파 273타로 올 시즌 처음 우승컵에 입을 맞췄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양용은은 2라운드 3번홀 보기 이후 마지막날 17홀까지 50홀 무보기 행진의 진기록도 세웠다.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PGA 챔피언십을 포함해 2승을 수

확했던 양용은은 8개월만에 다시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상금은 41만6천600달러.
양용은은 유럽프로골프(EPGA) 투어를 겸한 이번 대회에서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우승해 메이저 챔피언으로서의 체면을 세웠다.
양용은은 22일 제주에서 개막하는 유럽투어 발렌타인 챔피언십에 출전, 국내팬들에게 메이저 챔피언의 샷을 보인다. 공동 2위 라이스 데이비스, 스티븐 도드(이상 웨일스)와는 2타차가 났지만 경기 내내 경쟁자들을 압도한 완벽함 승리했다.
1타차 단독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에 나선 양용은은 전반에 그린을 거의 놓치지 않았

고 침착한 퍼트로 큰 위기 없이 타수를 줄여나갔다. 양용은은 2번홀(파5)에서 벙커에서 친 세번째 샷을 홀에 붙여 가볍게 버디를 잡았지만 5번홀(파4)에서 1m짜리 버디 퍼트를 놓쳐 파로 돌아오기도 했다.
파행진을 이어가던 양용은은 14번홀(파5) 버디로 2위 그룹에 3타차로 앞서 나갔고 18번홀(파4)에서 티샷을 페어웨이 벙커에 빠뜨려 두번째 샷을 레이업하는 바람에 1타를 잃었지만 우승에는 지장이 없었다.
제이미 도널드슨(웨일스)과 미코 일로넨(핀란드)도 추격에 나섰지만 기복이 심한 경기를 펼치며 타수를 잃어 양용은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 줬다.
도널드슨과 일로넨, 요한 에드포르스(스웨덴)는 12언더파 276타로 공동 4위에 머물렀다. 대회 초반 상위권으로 치고 나갔던 김도훈(21)은 마지막날 타수를 줄이지 못했지만 함께 10언더파 278타로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F1, 10월 영암 대회...알고보면 더 재미

오는 10월22일부터 사흘간 영암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F1 그랑프리대회를 6개월 앞두고 F1 머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올해부터 달라진 규약에 대해 알아본다.



씽씽 질주~ F1 머신
비가와도 와이퍼 없네

자동차경주는 대표적인 ‘지식 축적형 스포츠’다.

사소한 것이라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스포츠라는 점에서 F1도 많이 알아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럼 드라이버가 쓰고 있는 헬멧에 특수 방수 기능이라도 돼 있는 것일까. 김재호 부장은 “흔히 F1이 기술, 과학과 결합한 스포츠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기능도 없다. 물론 드라이버가 입는 옷의 소재는 방수 기능이 있는 것이 따로 있지만 헬멧의 경우 엄청난 속도에 빗물이 흘러나가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럼 기어는 몇 단까지 있을까. F1 머신에 기어는 7단까지 있으며 일반 차량과는 달리 운전대 주위에 있다. 양손으로 조작하게 돼 있고 레버를 당기는 방식이라 빠른 조작이 가능하다. 시동을 거는 방법도 다르다. 일반 차량처럼 열쇠로 시동을 거는 것이 아니라 버튼을 눌러 시동을 건다. 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외부 배터리를 연결해서 시동을 건다.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부 전원 없이 시동을 어떻게 걸 수 있을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다만 시동이 꺼지더라도 한 번 정도는 자체적으로 시동을 걸 수 있다.

그러나 비가 오면 대책이 없는 것이 F1 머신이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비가와도 드라이버를 보호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드라이버가 외부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와이퍼가 없다.

그럼 드라이버가 쓰고 있는 헬멧에 특수 방수 기능이라도 돼 있는 것일까. 김재호 부장은 “흔히 F1이 기술, 과학과 결합한 스포츠라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기능도 없다. 물론 드라이버가 입는 옷의 소재는 방수 기능이 있는 것이 따로 있지만 헬멧의 경우 엄청난 속도에 빗물이 흘러나가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비가 와도 서킷에 물이 고여 주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다음에야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비가 와도 서킷에 물이 고여 주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다음에야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비가 와도 서킷에 물이 고여 주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다음에야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비가 와도 서킷에 물이 고여 주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다음에야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비가 와도 서킷에 물이 고여 주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다음에야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비가 와도 서킷에 물이 고여 주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다음에야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비가 와도 서킷에 물이 고여 주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다음에야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비가 와도 서킷에 물이 고여 주행이 불가능해지지 않는 다음에야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호랑이 조급함에...



불펜진 필승·패전 구분 없이 등판 난조
타선도 집중력 떨어져...승수쌍기 잇단 실패

‘조급함에 무너진 호랑이’

18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예정된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와의 시즌 3차전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다. 앞선 14일 춘설(春雪)로 두산과의 대결을 하루 쉬었던 KIA는 굵은 날씨 탓에 이번주 4경기만을 치렀다.

주중 두산과의 경기에서 1승 1패를 주고 받았던 KIA는 LG에게는 2연패를 당하며 4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1승3패라는 기록만큼 경기 내용도 KIA의 완패였다.

과부하 걸린 불펜의 부진이 KIA의 발목을 잡았다.

서재응과 히메네스가 대결을 벌인 13일 두산전부터 심상치 않았다. 3-3으로 맞서던 5회말 KIA가 2점을 뽑아내며 역전에 성공했지만 손영민-김희걸로 이어지는 불펜진이 6실점 하며 승부의 추는 순식간에 두산으로 기울었다. 8회말 8-9까지 추격을 했지만 KIA의 뒷심은 여기까지였다.

에이스 윤석민이 선발로 나선 15일 7회말 상대 내야수의 미숙한 플레이로 얻어낸 무사 1·2루에서 김상현의 스리런포가 가동됐다. 3-0의 리드가 이어지던 8회초, 윤석민이 볼넷과 안타를 허용하면서 1사 1·2루.

윤석민은 더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덕아웃의 착오 속에 투수가 확장철로 교체됐다. 결과는 실패였다. KIA는 8회 타진 이종범의 결승 솔로포로 겨우 4-3으로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새 용병 라이트의 데뷔전이었던 16일 LG 전에서도 KIA가 2점을 먼저 뽑았다. 그러나 5회말 김상현의 빠아픈 실책으로 1점을 내준 뒤 라이트가 흔들렸고 폭투까지 나오며 2-2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타선 불발로 2-2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던 8회 손영민에 이어 확장철이 구원 등판했다. 확장철은 다시 한 번 4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경기 흐름이 깨졌다.

17일에도 문제는 불펜이었다. 4-5로 1점차 추격을 하고 있던 8회초 로페즈에 이어 마운드를 넘겨받은 김희걸이 첫 타자에게 2루타를 허용하면서 곧바로 손영민과 교체됐지만 위력을 잃은 공은 박경수의 민투홈런으로 이어졌다. LG의 방망이가 결집을 수 없이 불을 뿜으면서 경기는 4-13 KIA의 대패로 끝났다.

로드리게스, 이대진 두 선발의 이탈속에 KIA는 시즌 초반 불펜 의존도가 높았다. 득점 기회마다 나오는 병살과 삼진 등 타선의 부진이 맞물려 불펜의 의존도는 더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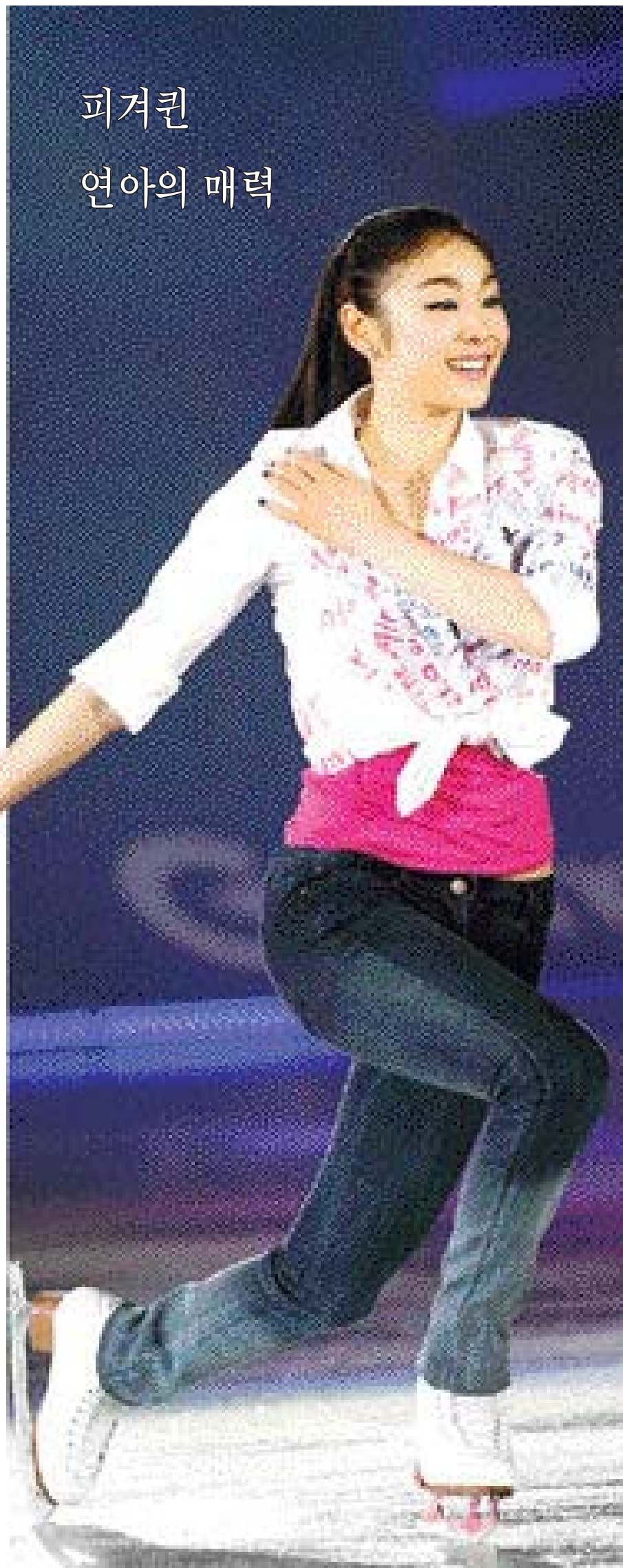
강팀들과의 초반 대진이 연달아 준비되면서 덕아웃도 마음이 급하다. 선발진 완성으로 마운드 큰 틀이 완성되기는 했지만 불펜진의 그림은 여전히 제대로 그려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KIA 불펜의 필승진력이었던 손영민과 확장철이 올해도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다시피 하다. 필승조와 패전조 구분없이 불펜진의 모호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매경기 KIA는 필요 이상의 총력전을 보였다.

전력 출력이 많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으면서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다.

제때 터져주지 않는 타선의 침묵 속에 실점없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KIA에게 여유와 집중력이 아쉬웠던 한 주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겨퀸
연아의 매력

‘피겨퀸’ 김연아가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특별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KCC 스퀘어 페스타 온 아이스 2010’에서 열연하고 있다.

KIA, 광주일고에 500만원 상당 야구용품 전달

KIA 타이거즈가 광주일고 야구부에 5백만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전달했다. KIA는 17일 홈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에 앞서 제 64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 야구대회 우승을 이끈 허세환 감독에게 야구용품 지원서를 전달했다. 광주일고는 지난날 29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장충고와의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에이스 유창식의 완벽투로 1-0으로 승리하며 2년만에 대회 패권을 되찾았다. KIA는 매년 지역 연고의 우승팀에게 지원금과 야구 용품을 전달하는 등 연고 지역 아마야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연린 장충고와의 황금사자기 결승에서 에이스 유창식의 완벽투로 1-0으로 승리하며 2년만에 대회 패권을 되찾았다. KIA는 매년 지역 연고의 우승팀에게 지원금과 야구 용품을 전달하는 등 연고 지역 아마야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